

2026. 08. 23 주일에배

예수님의 제자도

본문 · 마 10:1-4 · 막 3:7-19 · 눅 6:12-19

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일반 무리와 구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.

제자도를 볼 때 기도로 연구해야 할 항목이 셋 있습니다. **왜 부르셨는가(목적)**, **어떻게 부르셨는가(방식)**, **누구를 부르셨는가(대상)**입니다. 훗날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 사역하실 때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1 왜 부르셨는가 — 부르심의 목적

막 3:14-15

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

첫째는 **동행**입니다. 열둘을 세우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친목을 다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이유도 각 사람이 **작은 예수**로서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함입니다.

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입니다. 그렇다면 제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사람입니다.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연약합니다. 연약함에 집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.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거룩하신 예수님에게서조차 비난거리를 찾아냈습니다. 반대로 **서로의 강점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**에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서로를 배울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한 지체를 돕는 일도 공동체적으로 해야 합니다. 담임사역자만 할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. 어느 지체가 이사를 했다면 다 같이 가서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 주고,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힘써 도와야 합니다.

둘째는 **전도**입니다.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. 핍박과 관계 단절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영적인 일이며 **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**. 내가 저 사람의 영권보다 약하면 전도가 안 되고 오히려 전도를 당합니다. 훈련으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.

셋째는 **권능 위임**입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. 그런데 다른 사람 안의 악령을 내쫓으려면 **먼저 내 인생을 쫓먹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** 치유와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. 그러면 영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청결해집니다.

가르침과 전도함과 치유함, 이것이 **예수님의 삼중사역**이며 제자도의 목적입니다. 우리가 제자라면 이것을 삶에서 확신해 보아야 합니다.

오늘 내 삶에서 점검할 것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나는 작은 예수로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|
| 2 |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, 그에 필요한 영권을 갖추었는가 |
| 3 | 나는 먼저 치유를 경험하여 영육간의 청결함을 갖추었는가 |

2 어떻게 부르셨는가 — 부르심의 방식

첫째는 **기도**입니다. 누가복음 6장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, 밝으매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서 열둘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. 예수님조차 철야로 밤을 새우며 신중히 기도하시고 택하셨습니다. 자기가 고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**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한 사람 한 사람**을 세우신 것입니다.

둘째는 **주권적 선택**입니다.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는 말씀은 당대 랍비들의 방식과 달랐음을 보여 줍니다. 당시에는 제자가 되려는 학생이 직접 스승을 찾아가 배움을 청하고 등록금을 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**자격 없는 자를 먼저 찾아가**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.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쥐신 것입니다.

복음서를 종합하면 순서가 보입니다. 갈릴리와 유대와 두로와 시돈에서 **많은 무리**가 나아왔으나 그 무리를 다 제자 삼지 않으시고 그중 원하는 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. 그리고 그 **제자 무리 중에서 다시 열둘**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.

3 누구를 부르셨는가 — 부르심의 대상

첫째, **어부 중심의 구성**입니다.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, 최초의 제자들이 모두 열두 사도에 들어갔습니다. 어부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훗날 공회에 붙잡혀 간 베드로의 연변을 듣고 종교인들이 놀랐습니다. 우리라면 학벌 있고 똑똑하고 사고 안 치는 사람을 뽑고 싶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뽑지 않으셨습니다.

둘째, **셀롯 시몬과 세리 마태**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가문과 학식과 신분을 고려하지 않으셨고, 심지어 상극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까지 부르셨습니다. 셀롯은 열심당원으로, 품속에 시카라는 단검을 품고 있다가 정적을 죽이던 이들이었습니다. 그런 시몬에게 세리 출신 마태는 민족 변절자요 정적이었습니다. 이 두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사도로 훈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.

잠 27:17

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

우리 공동체에 왜 하필 저 사람을 부르셨을까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.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**바로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할 사람**입니다. 성향이 다른 사람을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서로 연단하여 더 성숙하게 하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.

셋째, **가롯 유다**입니다. 세 복음서가 명단에서 공통으로 붙인 수식어가 있습니다. 예수를 판 자라. 그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보다 **그런 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** 중요합니다.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. 가롯 유다뿐 아니라 겐세마네에서 다 도망갈 사람들임을 아시면서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.

이유야 압니다. 아무도 자기 열심으로는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없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.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**미래를 모르는 것이 축복**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누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다 알면서 진심으로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.

4 목양은 원래 아픈 것입니다

저에게는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었던 한 사람이 신앙을 떠나면서 저를 비난하며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. 그 뒤로 저는 가르칠 것은 다 가르치고 물질과 시간을 다 헌신하면서도 **마음만은 줄 수 없다**고 생각했습니다. 이것까지 주었다가 떠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누군가 공동체를 떠나도 괜찮은 척, 원래 내 사명이 그러니까 그런 척했습니다. **사명을 방어기제로 삼았던 것**입니다. 그런데 이번 수련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.

기도 중에 주신 마음

너는 왜 내가 너에게 붙인 동역자들을 믿지 못하느냐. 왜 그들을 언젠간 떠날 사람으로 취급하며 상처받지 않으려 방어하고 있느냐. 아들이, 목양은 원래 아픈 것이다. 아프더라도 자녀 삼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목양이란단다.

그때 가롯 유다를 사도 삼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.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할 열두 제자를 사도로 삼으신 그 마음, 그리고 유산을 쥐어 보낸 둘째 아들을 버린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매일 나가서 기다리던 **아버지의 마음**이 들어왔습니다.

여러분을 영적 자녀로 여기지 못했던 것, 여러분과 여러분을 보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불신앙을 회개하게 된 수련회였습니다. 그동안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. 여러분은 아버지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영적 고아로 만든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. **이제는 정말 제 마음까지 드러, 상처받더라도 아파하면서 여러분을 먹이겠습니다.**

결론 —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

“배신하고 떠날 영혼임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.”

상처 많고 연약한 자, 학식 없고 자격 없는 자를 한 공동체로 불러 주셔서 각자 가운데 있는 작은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

우리 더블유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제자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겨 주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되 **끝까지 사랑하기**를 원합니다.

우리 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. 자신이 직접 세운 사도의 배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. 그 사랑, 아프더라도 따라가게 하소서.

FOR OUR GROUP

함께 나누는 적용 질문

Q1

[말씀 듣기 전] 나의 삶 돌아보기

나는 제자로서 **오늘 내 삶에서 점검할 것** 세 가지에 대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? 각 항목을 두고 내 삶을 나눠주세요.

Q2

[말씀을 통한 깨달음] 나를 부르신 자리

나는 스스로를 **예수님의 제자**라고 생각합니까?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**언제, 어디서, 어떤 방식으로** 부르셨는지 나눠주세요.

Q3

[말씀 받은 후] 제자 생활의 변화

이 말씀을 통해 내 **제자 생활에 일어난 변화**는 무엇입니까? 나눠주세요.

이번 주 함께 기도할 제목
